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 승리하는 주도면밀성의 습관 (느 2:11-20)

## A Meticulous Habit That Leads to Winning (Neh 2:11-20)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God does not work all by Himself. God always wants to work together with us. Since He works with us, He allows us to join in His amazing pleasure of achieving His will.

### 1. 느헤미야의 주도면밀한 계획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이 능욕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들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부지런히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수심이 있음을 격정하며 원하는 바를 묻자 그는 잠시 묵도 하고 유다 땅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을 토해냅니다(5절).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왕께 아뢰었습니다. 먼저 그는 강 서쪽 총독들과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7절). 그래야 안전하게 유다에 갈 수 있고, 또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재물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했습니다.

### 1. Nehemiah's meticulous plan

When Nehemiah heard that his country, Israel, was in great trouble and disgrace, he mourned, fasted, and prayed without ceasing. Then he meticulously planned what he needed to do and diligently put his plan into action. When King Artaxerxes saw that Nehemiah's face was so sad and worried, he asked him, "What is it you want?" Then Nehemiah prayed to the God of heaven, and frankly told the king his request that he be sent to Judah to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v. 5). Moreover, he concretely informed the king of what he needed in order to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First, he asked the king to write letters to the governor of the trans-Euphrates and to the forest keeper (7). This was so that he could get to Judah safely and obtain timber to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He not only prayed but progressed in his work because of a meticulous plan such as this.

### 2. 느헤미야의 주도면밀한 행동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가장 서둘러 한 일은 성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몇몇 사람과 함께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이는 성벽 재건 계획이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알려질 경우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거나, 그 대적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적당한 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재건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였고, 온 백성들이 온 마음과 힘을 합하여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계획과 모든 것을 섭렵한 자의 담대함과 확신을 보았고, 그러므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간증,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우셨는지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 2. Nehemiah's meticulous behaviour

Upon arriving in Jerusalem, the first thing he did in a hurry was to inspect the walls. Late at night. He silently went out and came back with a few people. If the plan of rebuilding the walls became known to Sanballat the Horonite and Tobiah the Ammonite, he would have faced severe difficulties before he even got started. He was concerned about the countermoves of the great enemy.

After that, when the time was right, Nehemiah declared the plan to rebuild to the people. They decided to build the walls together with all their mind and strength. This was never an easy task, but they looked to Nehemiah who had correct information, a detailed plan, who was courageous and confident, and who was to oversee everything. Therefore they trusted him. Above all, they heard Nehemiah's testimony, which was how God had helped him until now. So a wonderful mission began, in which their mind had merged into one.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무시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기도한 만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또한 주도면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계획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못지않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위해 계획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 Conclusion

Nehemiah was a man who prayed. He prayed without ceasing, all the time, together with his co-workers of prayer. Moreover, he planned meticulously and acted in detail, inasmuch as he prayed. Through his persuasive testimony, he was able to unite many people's minds. Whoever lives in this world lives with a dream. But there are few who meticulously plan for their dream to come true. In the midst of prayer, we must plan and act with integrity for God's vision. A number of people do not act properly because of their fear of failure. However, as Mr. John Maxwell says, "Whoever does not plan for anything, because of their fear of failure, plans for failure."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또한 교회의 사역 가운데 깊은 기도와 함께 주도면밀한 계획과 함께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In the midst of your family, work, and church's work, as you move into action with deep prayer and have a meticulous plan with faith, I earnestly pray that you will win for God's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홍해작전 승리의 행군 계속돼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 기도와 부흥 - / 새벽5시, 본당

우리 교회 박노철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는 2011 홍해작전은 많은 성도들이 승리를 위한 행군에 동참하여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홍해작전 첫 날인



6일 본당 2, 3층을 성도들이 가득채웠고, 홍해를 건너기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홍해작전 본부는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홍해작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홍해작전 체험수기를 6일~30일까지 공모 중이다. 홍해작전 체험수기는 서울교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 중간의 [홍해작전 체험수기 공모] 배너를 클릭한 후 작성할 수 있다. 홍해작전 기간동안 빠짐없이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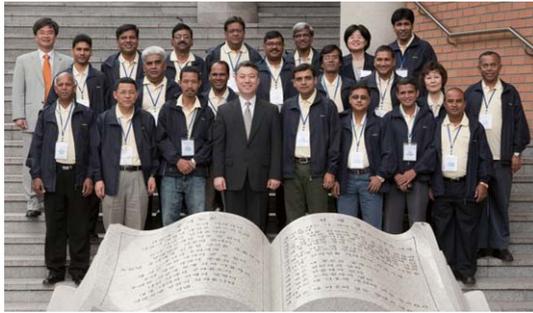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서 주무시는 성도들을 위해 남성은 702호, 여성은 706호에 마련 되어 있으며 아침에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홍해작전 기간 중 금요기도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홍해작전 주제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와 같이 이 나라의 미래와 소망인 청년부 이하 다음 세대들의 꾸준한 참여는 교회의 큰 축복이고 은혜이다. 홍해를 나 혼자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가야할 책임의식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하여 국가와 교회, 개인의 흥해가 같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바란다.

## 제20차 KIMCHI신학세미나 6월15(수) 수요일2부예배시간에 수료

제20차 KIMCHI신학세미나가 6월15일(수) 수요일2부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를 마치고 수료식을 갖는다.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지역교회의 우위성"을 주제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은 홍해작전특별새벽기도회와 강의와 토의, 다락방 모임과 산상기도회, 교회학교 방문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부흥과 활동력을 배우고 있

다. 방글라데시의 복음화와 교회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특별찬양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 드리고 당회원, 섬김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한다. 6월14일(화) 오후6시에는 오정수 장로 초청으로 가든파티가 베델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 2011년 제11기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선교바자

제11기 단기선교팀(단장: 이강진 집사)은 8월 1일(월)부터 9일(화)까지 이슬람이 85% 이상인 방글라데시로 약30명이 파송된다. 국민소득이 낮고 인구밀도가 최고인 나라의 수도 다카 시에서 조남혜 선교사(어린이 호스텔사역)와 박진영, 김진성 선교사(의료 사역), 그리고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다카장로교회)와 협력하여 의료 및 이미용, 어린이 사역 등의 봉사를 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은 전원 자비량으로 파송되는 바, 이번 선교사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를 가진다. 6월26일, 7월 3일, 10일, 17일, 24일에 교회 8층에서 열리는 선교바자에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주님의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바자물품 찬조 및 문의\*
- 단장 이강진 집사 010-5020-8663
- 회계 양정실 권사 010-9221-7506

##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 금상 수상

지난 4일(토) 오후4시에 열렸던 제24회 서울강남노회 중고등부 기독교 찬양대회에서 우리교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지휘: 김현식 선생)가 금상을 수상하였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

#### (문 5) 창세기 1장은 화석층에 의해 알려진 시간의 길이와 일치하고 있는지요?

(답-1) : 성경의 진리성을 말하려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와 화석이나 지질학에서 지층의 연대 측정을 위한 광물질로부터 찾은 가설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느냐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6일 동안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인간은 마지막 날에 지음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창조론과 소위 과학적 증거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무오성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如字的) 또는 은유적 해석 방법을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사용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4) 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넌센스일 것입니다. 결국 돈의 힘이 대단하나 천국은 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은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하신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요 2:21) 이라고 요한은 주석을 붙여 주었습니다.

창1:27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 와서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이엔 긴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후 모든 가축과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18) 그를 잠들게 하신 후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23)

이처럼 성경(창 1:27)과 성경(창 2:15-22)을 비교해 볼 때 창세기 1장은 아담과 하와가 6번째 날에 창조되었음을 말한 것이지 그 시간이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넷째 날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태양이 넷째 날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홍해작전스케치

# 기도의 불을 밝히는 홍해 작전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검푸른 바다 홍해가 2011년 6월 6일 오전 5시를 기해 양백을 이루며 갈라지고, 서울교회 성도들은 갈라진 홍해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오늘로 7일째, 홍해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젓먹이 아이부터 연로하신 분까지,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홍해작전은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박노철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 주역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해산하지 못한 꿈을 위해 기도하자고 첫 날 말씀을 열었다.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번 홍해작전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 우리로 은혜의 단비를 맞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에 신앙의 야성이 없어졌다며 사람 앞

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끝까지 주님만 붙잡는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종,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사랑의 종,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종 등,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제시하며 서울교회 성도 모두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을 가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고 했다. 그간 잘 참석한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2주간 동안 간혹 참석하셨던 분들,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까지 모두 열심을 내어 넉넉히 승리하는 홍해작전이 되기를 기도한다.

- 허숙 권사(편집부)
- 사진 : 정치은집사, 이승준 성도(편집부)



순교자기념주일 특별기고

## 그리스도인답게

정수길 목사(7, 8교구지도)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이면서 또한 순교자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순교자(martyr)의 어원인 헬라이어 마르투스(μάρτυς)는 원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테반의 순교(행 7장)를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었고(행 8:1) 사도 바울이 회심하였습니다(행 9, 22, 26장). 기독교가 퍼져나가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는 힘없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저들은 로마 대화재의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가 하면, 기독교인

들을 군중들의 노리개감으로 삼아 맹수의 밥이 되게 하였고, 황제송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κύριος,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도 서슴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립, 저스틴, 오리겐, 이그나티우스 등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의 대 박해 때인 주후 107년에 순교한 안디옥의 노(老)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구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로마의 박해와 핍박



한국기독교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

#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Pentecost)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다. 이 날은 흔히 '맥추절'(출 23:6)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였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이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발생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

과 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순교자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 순교자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저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김치신학세미나 스케치

#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 20차 김치 신학 세미나 참석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고단한 여정 속에서도 조국 방글라데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생각하며 배울 것이 너무 많아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이같이 훌륭한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고 한다.

7일 오후 늦게 도착한 방글라데시 교회 지도자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서울교회 성도들의 헌신이였다. 공항 영접에서부터 등록, 제1권사회(회장 김예환 권사)가 정성껏 준비한 식탁, 붉은 제복을 입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안내위원과 친절한 미소로 식사를 돕는 서빙팀 등등. 예수님을 대하듯 자신들을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보며 참가자들은 이들이 정말 자원봉사자들인지 몇 번이고 물었다. 성도의 봉사가 한국 교회에서는 늘상 있는 모습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회 예배에서 박노철 목사님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Pray for revival)'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방글라데시 교회 리더들의 가슴에 도전의 불을 지폈다. 이 날 설교에서 박노철 목사님은 "기도와 부흥이라는 강력한 두 개의 단어가 만나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것은



개회예배설교 중인 박노철목사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는 곧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라고 했다. 또한 1907년에 일어난 한국의 평양 대각성운동을 소개

하며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들도 조국 방글라데시 교회를 위해 꿈과 비전을 가지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가 방글라데시의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오늘로 6일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이른 새벽 흥해작전 새벽기도회 참석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강의와 토의, 선교 전략 회의, 기독교 기관 탐방, 다락방 모임 참관, 산상기도회 등 숨가쁜 일정

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같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이번 참가자들과 함께 온 서울교회 파송 조남혜 선교사는 파송 교회에서 이같이 훌륭한 신학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참가자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이들이 방글라데시의 주요 교단의 리더들이만큼 이번 세미나가 방글라데시 교회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5일(수) 7시 종강예배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

제 20차 김치 신학 세미나의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박정선 장로님은 차장 양준경 집사님을 비롯해 수 개월 동안 준비한 스텝들, 열흘간의 식사를 담당한 제 1.2 권사회(회장 제 1 김예환 권사, 제 2 최미아 권사), 서빙팀(팀장 김혜란 집사), 안내위원, 공항 영접과 운송을 맡은 모든 봉사자들과 무엇보다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여 준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암흑의 땅 방글라데시! 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므로 진정한 부흥의 때가 오기를 기도한다.

글: 허숙 권사(편집부)  
사진: 이승준 성도(편집부)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6월12일(주) 평양교회에서 설교 한다. 14일(화) 한국이가폐기독여성협의회주최 나라 위한 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교회(6.12) 베드로선교회(6.19)
- 금주의 식사: 차도훈 집사님태영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앞에 있는 모든 흥해들이 열리는 응답이 있도록
2. 2011 김치신학세미나에 초청 받은 방글라데시 교회 리더들이 강건함으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도록
3. 방글라데시에 파송 되신 바로이 선교사님과 조남혜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 되도록

Rev. Michael Kamaal Adhikari

**Introduction**  
Name: Rev. Michael Kamaal Adhikari  
Position: Principal  
Institution: Bangladesh Institute of Christian Theology (BICET)  
47, West Rajshahi, Savan, Daka  
Dhaka-1300, Bangladesh  
Email: michael@dhaka.net

**Pastor**  
Hosanna Bible Church  
Family: Wife: Beauty Adhikari  
Two daughter - Lisa (30) Leah (28)  
Son - Joshua (25)

**My Expectation at KIMCHI Seminar:**

- Being a busy pastor & father sometimes are loaded and exhausted. hope to be refreshed and recharged by the Word of God and the Fellowship and prayer of the fellow believers at Seoul Presbyterian Church.
- Hope to be enlightened by the teachings and sharing of the experiences of the success of Korean churches.
- Get encouragement to face the challenges back home.

To build up a longtime meaningful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hurch more specifically Seoul Presbyterian Church for mutual encouragement, prayers and practical help in fulfilling God's mission in Bangladesh, Korea and the ends of the earth.

**Thanks Prayers**

- So am grateful to the Lord for Seoul Presbyterian Church through whom He has provided this wonderful opportunity.
- So praise God for the love and care shown by all at Seoul Presbyterian Church.
- I am so blessed by the spirit of prayer and vision of global mission of the Church, which are fact goes together.
- Please pray that the sleeping churches of Bangladesh may experience a revival to get the vision and courage to face the challenge of reaching 150 million Muslims.

▶ 호산나성경교회 담임목사이자 방글라데시 기독교학교 교장인 마카엘 키말 애드리카리 목사는 비본 사역으로 지쳐있는 자신이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서울교회 성도들과의 교제와 기도로 재충전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서울교회에 감사드리며 참여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고 했다.

1. NAME: REV. LEOR P. SARKAR  
GENERAL SECRETARY  
BANGLADESH BAPTIST CHURCH FELLOWSHIP

2. EXPECTATION: → To know the secret of Korean Revival and Church growth to bring back some ideas for Bangladesh Church.  
→ Join and Experience Korean prayer fellow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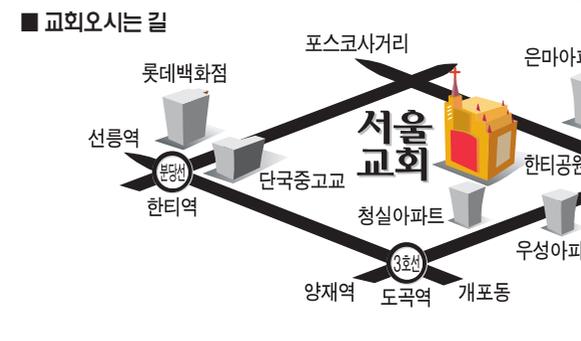
3. Experience: → Came with sickness but God helped me to continuing seminar participation.  
→ Challenged for Prayer & Prayers to see Revival in Bangladesh.

4. I met here, "Seoul Presbyterian Church" some wonderful loving and caring people- led by Rev. Samuel No-cheol Park and the Elders and Deacons. Your love and concern for World Mission, specially for Bangladesh, really touched our hearts. Thank you so much. May our loving God continue to bless you so that you can be instrumental to blessing for other countries.

▲ 방글라데시 침례교연합회 총무인 레오 P. 사르카르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배워서 방글라데시 교회에 적용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박노철 목사님과 성도들의 놀라운 사랑과 세계선교, 특별히 방글라데시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서울교회QR코드